쌀 산업 8400억 투입 경쟁력 키운다

전남도, 전략작물직불제·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
급변하는 국제 정세·기후 변화에 식량 안보 확보 능동 대처

전국 제1의 식량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전남도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올해 8400억원을 투입한다.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핵심 12개 사업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하면서 농민 소득 증대, 농가 경영 안정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식량보호주의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폭염·홍수·가뭄 등 이상기후 발생이 눈에 띄게 늘면서 국제사회는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쌀을 비롯한 식량 작물의 적정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잦아진 재해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도는 우선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적정 생산 분야에 가루쌀과 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682억원(전국의 37%),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45개소에 52억원(전국의 36%),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875ha에 38억원 등 3개 사업에 772억원을 지원한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분야에 규모화된 들녘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114개소에 137억원, 공동 육묘장 설치, 광역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에는 158억원을 쓴다. 기계화가 열악한 밭작물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5884대 150억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3000대 15억원, 영농안전장비 2만2000조 14억원 등 3개 사업에 179억원을 투입한다.

농가 기본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망 구축 분야에는 공익직불제 24만5000ha에 4907억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13만4000호에 570억원, 자연재해 등을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14만9000ha에 1660억원, 농업인 안전보험 12만6000명에게 153억원 등 4개 사업에 7290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0.5ha 미만 소규모 경작농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기존보다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밀, 콩 등 식량 자급률 제고와 생산비 절감, 농가 경영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해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일상화·대형화된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농업정책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 정치 나아갈 길은?"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정치혁신' 토론회가 8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렸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단준비위원장과 신경민 전 국회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성 데이터센터' 유관기관 협업 강화

업무추진단 출범…기업 애로 청취·추진 상황 점검 등

장성군 남면에 들어서는 장성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장성 데이터센터 업무추진단이 최근 출범했다.

전남도와 장성군을 포함해 광주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전남테크노파크, 파인디씨피에프브이(주) 등 관련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장성 데이터센터는 4900억원을 투입해 40MW급 데이터센터 1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투자협약 이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9월 착공을 목표로 설계·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출범한 업무추진단은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을 단장으로 건설분과, 지원분과, 협력사업분과로 구성됐다. 기업 애로사항 수렴, 추진 상황 점검,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수요기업 발굴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본격적인 데이터센터 착공에 필요한 기관별 업무협력을 포함해 전남지역 창업 초기(스타트업) 기업지원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역할도 할 계획이다.

건설분과는 데이터센터의 설계 및 시공, 금융에 관한 사항을, 지원분과는 전남도와 장성군을 중심으로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협력사업분과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아토리서치 등이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도내 기업 지원, 디지털 전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성·가족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기준 완화

전남도, 기본재산 인하·회원수 축소·회비 기준 폐지 등

전남도가 고령 인구 증가,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여성권익 활동을 활성화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은 추가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기본재산을 기존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100명 이상 회원이 필요했던 허가 기준도 50명 이상 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회비 월 500만원 기준은 폐지했으며, 다만 법인설립 허가 시 완화 기준 외에도 법인 설립목적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반,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인설립 허가 이후에는 법인 목적사업의 실현 유지를 위해 법인 운영 실무 종사자 교육과 법인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해 2년간 매년 실시할 방침이다. 완화된 법인설립 허가 기준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학숙, 올 신규 입사생 157명 모집

전남 출신 대학생을 위한 전남도립 전남학숙이 2024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57명(남 97·여 60)이고, 모집 기간은 10일부터 2월 15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광주시와 인접 시·군 소재 대학 신입·재학생(대학원생 포함)과 대학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이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학부모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입사를 바라는 학생은 학숙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 팩스, 우편 및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1년 365일 운영하는 전남학숙은 2인 1실의 생활실, 독서실, 체력단련실, 멀티미디어실, 세탁실, 운동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사생은 월 11만원으로 1일 3식 친환경 무상급식과 1일 9회 광주권 대학을 순회하는 통학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상시 혼잡' 광천사거리 교통환경 개선

터미널 출입 차량 동운 고가 방면 이동, 노면에 유도선 설치

광주시가 도심 내 대표 교통 혼잡지역으로 꼽히는 광천사거리 주변 교통환경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택시운송조합, 전문가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공사를 추진했다.

터미널에서 나오는 차량이 광천사거리에서 우회전해 교원공제 사거리에서 유턴 후 동운 고가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면에 방향유도 표시(노면 색깔 유도선)를 설치했다.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눈에 잘 띄는 곳에는 '동운 고가 방면 좌회전 금지'라는 대형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해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

광천사거리는 간선 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무진대로(동서)와 죽봉대로(남북)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데다 터미널, 백화점 등이 운영돼 교통 혼잡이 상시 발생하는 지역이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터미널 내부 이용차량이 동운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광천사거리 주변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다른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25건 적발

지난해 하반기 조사…행정처분·국세청 통보 등 처분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광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에서 2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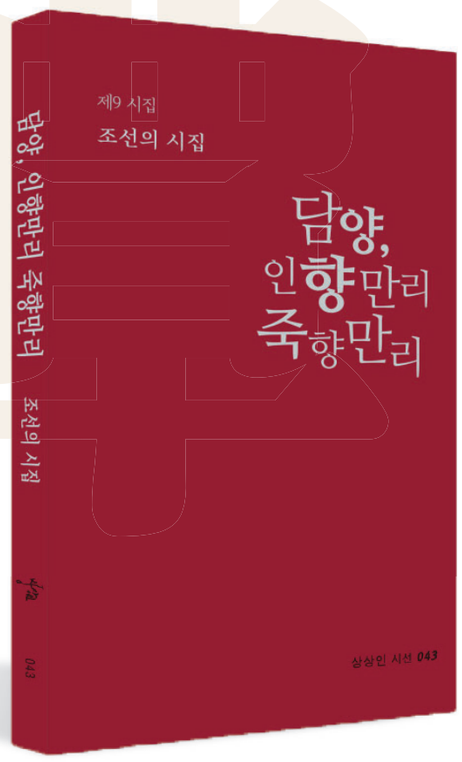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8~12월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24건(337명)을 조사했으며, 거래 가격 허위 신고,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탈세 의심 등 25건(3건 중복·3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자치구 행정처분 8건, 국세청 통보 14건, 행정계도 6건 등 처분을 받는다.

조사는 매매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 조달 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송희종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허위 신고 근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래 모니터링과 정밀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지 은 이 | 조선의
펴 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헌사가 아닐까."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